

■ 2026년 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 지원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 지원
- 회의일시 : 2026. 4. 21(화) 10:00-11: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노승림, 손창우, 신호경, 최원선, 한경진

2026년 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해외 공연을 통해 넓은 견문을 쌓고, 음악이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국가 간 친선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2026년도 한시 사업입니다. 합창단원 개개인의 예술적 성장에도 도모함은 물론, 해외 현지 공연을 통해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공모 신청기간 동안, 총 12개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단체들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첫째, 단체의 활동 이력과 국제교류 역량, 특히 합창단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업수행 역량’에 30%를 배정했습니다.

둘째, 공연 목적과 목표의 타당성 및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에 30%의 비중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핵심인 국가 간 친선 도모와 단원들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한국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 기여도’에 가장 높은 40%의 가중치를 두어 엄격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위원회는 단순한 예술적 우열 판단에 치우치지 않고, 해당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신청 프로젝트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아마추어 합창단원이 해외 현장에서 겪게 될 실질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제교류의 상징성, 그리고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업의 특성상 단체가 학생들의 안전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실효성 있는 대처 방안을 강구하였는지를 꼼꼼히 평가하였으며, 안전한 인솔 대책과 실현 가능한 일정을 갖추었는지를 주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공모 결과, 총 12개 단체가 신청하여 매우 치열한 경합이 이루어졌고, 심의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최종 3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해외 기

관과의 확정된 초청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 완비되어 있었고, 단원들의 견문 확대와 예술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선정되지 못한 9개 단체의 경우 예술적 역량은 훌륭하였으나, 본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단체는 국제교류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현지 네트워크 증빙이 미흡하거나, 청소년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안전 인솔 대책 및 비상 시 대처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이 주요 미선정 사유로 꼽혔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에서 합리성이 다소 부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체들의 예술적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본 사업의 목적과 기준에 대한 적합성 판단의 결과임을 밝힙니다. 총 3억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 각 단체의 규모와 타당성을 고려하여 최대 1억 원의 예산 중 단체별로 신청한 금액을 배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청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많은 합창단에서 보여준 뜨거운 관심과 수준 높은 기획안에 심의위원 일동은 깊은 감동을 하였습니다. 지원 단체 모두가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 단 3곳만을 선정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으며,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에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과 같이 청소년 국제교류에 별도 예산이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선정된 단체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민간 문화 외교관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세계 무대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더 많은 발전과 성장이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